

23

5



박 영 빈 선생.

박 영 빈 선생은 1907년 7월 31일에 원동
 변강 수천구역 시영등에서 탄생하시었다. 박 선생의
 말년에 의하면 선생의 부친은 상식이 아주 방불한
 지식인이였으나 서자였기때문에 과거에 린접못하여
 전한당에서 어디에서런지 어떤 벼슬이던 할수없었다.
 때문에 자식 상식에 대한 비약을 감후시고 중국을 걸쳐
 서포령지 변보씨촌구역에 도착하여 인민학교 교원노릇
 을 하시다가 수천구역 시영등에 가서 동원생활을 하시었
 다. 선생은 교원생활에서 금심한 경제 곤란을 겪었기때

문에 시험중에 어긋하여 오신 이후에는 투석한능원으로
 가강하시고, 결집에서 읽을수없는 편지를 받으시면, 품
 읽어달라고 하시면- 나는 읽을수없으니 저편너집 김선
 달보고 읽어 달라고-하였다. 이렇게 상석하고는 폐원
 사한 박선생의 복원은 아들도 학교에 보내지 않아
 박 선생은 14세에 인민학교에 갈수없었다. 박선생
 의 복원은 그대로 양반이 글이라곤 박선생은 14세
 에 장가를 보내웠던와 그의 색씨는 그대에 17세였다.
 벌써 15세 되었는데 박선생은 장남을 보게되면 품쪽
 아이들에게- 아, 그아이라 네아이 아나 다란 놀림개
 지 받게되였다. 박선생은 늦게 14세에 인민학교에가
 게 되였으나 집에서 형에게서 자습을 하였으며 책 들은 많
 이 읽은 덕분에 5년 동안 공부할 대신에 일년 반밖에
 인민 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하였다. 1924년에 박선생이
 인민 학교를 필하는 해에 복원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다음
 해에 아이로 족었다. 박선생은 1924년에 초중에 입학
 하여 1926년에 필한다음 동년에 소왕령에 있는
 한인 사전에서 공부하게 되였다. 당시에는 한인 사장이
 라곤 없지 않고 러시아 사장에 한인 학부까지 없었던
 한인 학부에서 4년 공부하여야 되였으나 박선생
 은 3년 동안에 4년 공부를 강령으로 우등하게 완결하고
 1929년에 사전을 필하였다. 사전 졸업후 원동변방
 교육부의 배정에 의하여 박선생은 북화태로 나무 물까
 논으로 파견되게 되였다. 박선생의 말쑥에 의하여 화
 태로에는 나골관엽소크 강^의아무르 강으로 배하고 간다
 음에, 그다음에는 적은 발공선이 결인하는 큰 나루배에 앉아
 화태로까지 가게 되였으나, 도중에 큰 태풍을 만나 하루
 같은 10 일간 고생하여, 굶이면서 화태로까지 가서도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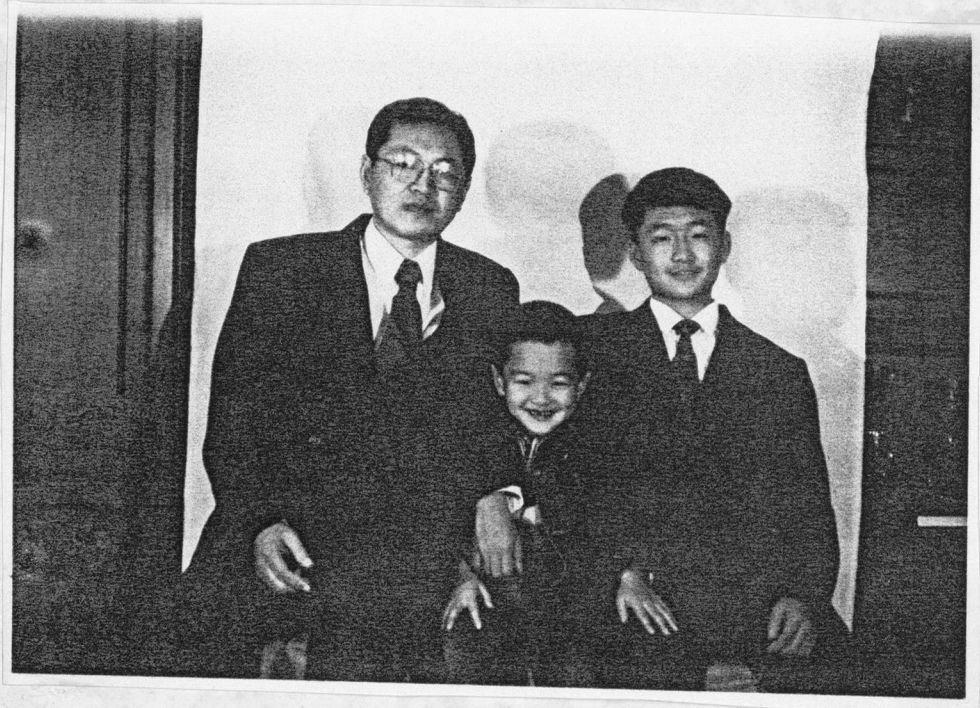
또 거기에서 30 킬로메트르 되는 나무뿤까 어장촌
 까지 가게 되었다. 당시 1929년에는 어곳에는 여러輛
 마차로, 자동차로 다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뽕등까
 지는 비는 모래뽕길을 3일간에야 풀라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이 나무뿤까 어장촌에 도착하여 보니
 전체 약 200호 가량이 사는촌에 한인은 약 20호가
 가량이 살고 한민 학교에는 학생들 모두가 17명이 공부
 하였다. 전체 4학급에 1대 학급에는 4-5명 학생이
 출석하였다. 이곳에 살고 있는 한민들은 원룸에너의 공립전
 생학교에 의뢰권을 위하여 투쟁한 한민가족들이살
 면서 고기잡어하는 협동조합에서 일하였다. 목적지 학교
 에서는 교원 한명이 벌써 4학급을 가르치는 교원이 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교원은 전혀 권위되지 않은 교원으
 로, 자기가 계속 원민학교 상식으로 아이들에게 질적교
 육을 줄수 없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설양한 박선생은
 이후의 가문에 이제 어디로 가겠는가? 하면서 2명이
 같이 일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자리가 제 목일할
 수 있는 준비가 약함을 자각하고 별말없이 다른 직업을
 택하였다. 박선생은 이곳에서 오래동안 일하지 않았지만
 그의 활동은 아동교육에만 국한하지 않고 당시 원민들
 에게는 아무런 문화교양도 제공한 수권에서, 실용장독감
 의, 지어는 각분까지 꾸며가지고 연극로 놀았으며, 때
 로는 자기도 여러가지 역을 하였다. 그러나 이곳에서
 얼마 안되어가지 않은곳에 오하라란 도시가 있었을바
 여기에는 온-일 원룸채취 회사가 있었을바, 거기에
 사는 많은 한민들이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민들에게
 한한 문화교양사업이 아주 필요하였다. 박선생은
 이렇게 청년시대에 군중들에게 문화에 관심으로 조직
 지르 한 결과 노원 시대까지로 노래를 개관하시였다.

박영빈 선생은 이렇게 공청회와 결으로 1941년 북화에서 가서 열성적으로 일하신 공으로 1941년에는 박선생을 레닌그라드 국립 사범대학 걸즈겐 영웅 사대에서 1931년 북화 공부하게 되었다처음에는 사대 역사-철학 분야에서 공부하시다가 1932년 북화는 수학-물리학 분야에서 공부하시었다. 박영빈 선생은 생각하시기를 역사나 철학은 상식이 없으면 책만 읽으면 될거언데 어떤곳에 가서 공부할까 더 고름한 상식을 소득하게겠다는 견해에서 수물과에 전향하였다 이것은 박선생의 명철한 타산이였다 우선 소득한 상식에서로 그러하였지만 차후 쓰하린정한 암사대에 있어서 박선생이 정치가였어면 더 두말할 필요도 없어 한안 당이였을것이다. 그렇다고 하여서 박선생이철치적면에서 복설한 간혹은 아니였다. 정반대로 박선생은 일생을 유능한 정치가로서 항상 지로적 지위에서 일하시였다. 레닌그라드 사대 학생으로 있으면서도 일일이 지나가 박선생은 학생 당위원회와 대학 당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면서 대학생 군중들에서 청년회 사업, 직병 사업 등으로 주 열성적으로 조직 지로 하였다. 이 외에 박선생은 레닌그라드에서 공부하시면서 대학 법외 밖에서도 상회 군중 사업에, 특별히 한안 군중들 속에서 당시 시기 적절한 사업들을 조직 진행하였어바 어시기에 레닌그라드 시에는 "중앙인민회관어란" 단체가 없었다. 이 중앙회관 내에는 "고려인 학생 협회"란 단체가 있었다 어러한 단체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의 활동이 전혀 보이지않았다. 박선생은 대학 일학년에서 공부하던 동안 중앙 중앙인민회관에서 몇번 찾아가 보았으나 그의 조직사업, 특히 한안협회 사업이 전혀 눈에 보이지않어 한번은 레닌그라드 시 인민

의원회에 찾아갔었다. 거기에서 박선생은 이전에 원동
 에서 한인사전을 조직하시고 그에서 초대 회장으로 사임
 하시던 한영제 선생을 만나게 되었다. 한영제 선생은
 시인인 위헌회 내에서 극로 세비족 관계 문제를 토크로 지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인 향토 협회" 사업
 이 잘리지 않아서 고민중에 박영빈 선생을 만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시었다. 한단의 큰미사업을 하자 한
 영제 선생은 레닌그라드 시내에 살고있는 친척 한인들을
 동양인족회관에 초청하였다. 그당시 레닌그라드 시내에는
 고에나 일하고 사는 사람은 불과 몇명밖에 지나지 않고 그외에
 전부다 대학생들이었다. 한인향토 협회 총회에서는 단한
 한가지 문제 - 협회 사업총화와 협회 지도 분부선정했
 다. 협회 총회에서 아주나름을 의약하게 진행한 것은지
 부를 비판하고 새 지도부 선거에서 박영빈 선생을 위
 원장으로 선거 한다는 취의원장과 회기장을 선거 하였다.
 그후 한영제 선생은 협회 사업 계획을 장성하는 방법 및
 어떤 어떤 문제들은 포함하여야 하니까 또 어떠한 날라
 들을 리용하여 사업을 전개해야 된다는 등문제들을 가르쳐
 주었다. 그 선생의 지도하에 박선생은 자기 사업계획에 -
 원동에서 발간되고 있는 한인신문 "선봉신문"을 대륙
 총주하여 내용을 남쪽하는 동시에 각 대학생들에게 배
 분하여 주며, 한인 명절과, 3.1절 같은 기념 일에는
 큰 보고 대회를 조직하고 유익한 리익인들을 리용하여
 내용이 풍부한 보고들은 조직진행하였다. 그당시에 레닌그
 라드에는 한영제 이외에 아주 유명한 한인 박사들이 없
 었던바, 레히안 박종로, 최글레브, 한영섭 등선
 생들이 계셨다. 한인 협회에는 유명한 러시아 박사

홀로르비치, 끈가, ^{드 박사인} 찬아 무궁하였는데, 화석석강의로 6.
하시곤 하였다. 특별히 강조하여야 될 것은 박사를 중
최글레브 화학 박사는 조선에서 안중근 선생하고 친한
동지로서, 그와 함께 꼭 이등박문을 죽여야 조선
이 해방될수있겠다고 맹약하고, 안중근선생은
할빈방양에 가시고, 이등박문이 콜시에 꼭잡혀
있다고 공문 받다음 최선생은 레닌그라드에서 이등
박문을 기다리다가, 그가 안중근 의손에 의하여
할빈에서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안생하고
레닌그라드에서 처음에는 조동을 하다가, 조동학
원으로 하간하고 레닌그라드 종합대학 화학부를
필하고 계속 일하면서 박사원을 마감한다음 박
사칭호를 받게 되었다. 당시 레닌그라드에서
일하던 전체 유색한 인사들은, 전체 한인 언테리
들로 전부가 스탈린의 반일정책에 의하여 1935년
1936년 시기에 검거 통살되었다. 박영빈 선생
은 1936년에 레닌그라드 사대를 최우등생으로 졸업
하고 사대 연구원에 있으면서 계속사대에 있게
되었으나 최우 부브노브 인민교육상의 지시
에 의하여 - 전체 대학 졸업생들은 황시 각 지방
들에 유색한 교원들이 부족한 조건하에서 한명도
남김없이 그들이 살고 있던 지방에 돌려보내란
의하여 다시 원동변강 교육부에 파견받게 되었다.
원동 변강 교육부는 박선생을 소왕령 한인 전문학
교에 부속 교원으로 파견하였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일에 착수하여 강의를 시작하자 마자 개개비는
박영빈 양역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박선생을

레닌그라드 사대에서 유명한 박사를 일하고 있
 다가 스페인 혐의로 체포된 박리하일의 동생이
 라고 하면서, 자기 출신은 독일인 노왕령과 일하고
 있다고 다짐한 이래 레일블라가군 하였다. 박선생
 은 그것을 전혀 복언하여, 전지 자기 형은 원동지방
 울진구역에서 협동조합 직원직에서 일하고 있
 다고 하면서 다음 차츰 그곳 소비에트 기관으로 복귀 형에
 대한 확인서가 도착하자 안심하고 일할수 없었다.
 박영빈 선생은 원동으로 복귀의 한 번 강제 이주
 때까지 계속 사전에서 일하다가 1934년 강제
 이주당시에 노왕령 한인 사전과 함께 풍아시아
 까자코 공화국 까살린스크 시에 도착하여 이주
 이듬해로 1940년로까지 계속 사전에서 근무하
 하신였다.



박영빈 선생의 차남 철수와 그의 아들 형제. 1945.

박영빈 선생은 1941년에 까사흐탄에서 이주하여 우르체코
 한 안기울시에 오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약 2년간 고종무학교
 원으로 일하시였다. 1942년 말에는 전가족이 도교북리지
 시에 따라 하뉴젠주 공화국 구역에서 떠난 조항에 가서거
 었다. 떠났을 때 협동조합내에는 한인 고증이 있었지만

8.
박선생은 1942-1943 학년으로는 고종고급전문학교
수학교원으로 일하시였으며, 다음 1945년 10월
에 북한에 파견될때까지는 고종고급전문학교
원 일을 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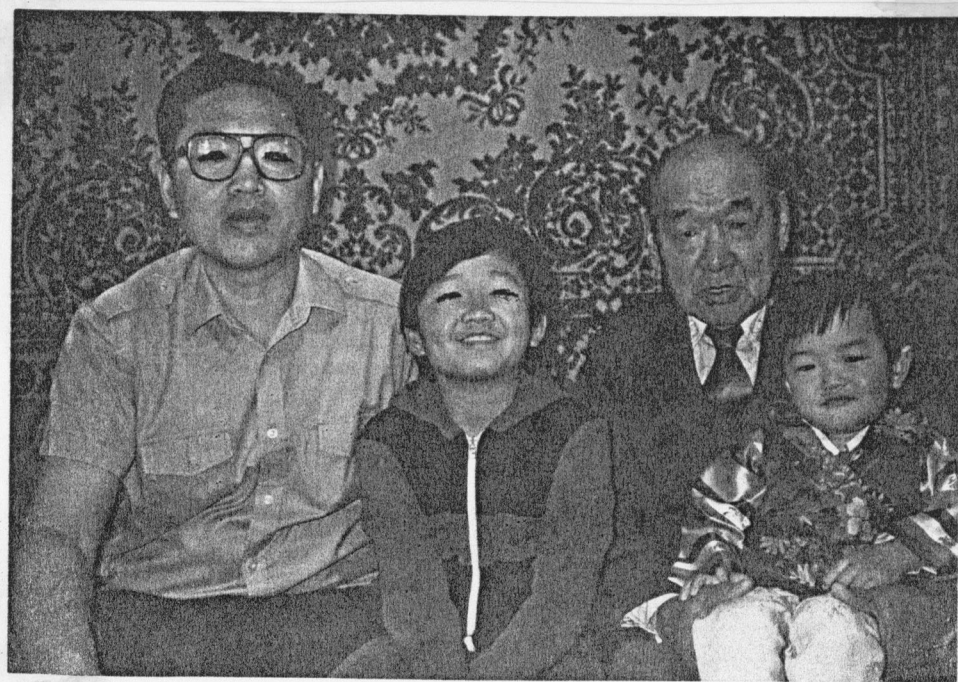
1945년 10월 중순에 박영빈 선생은 다뉴프스주 군
사령관의 명령을 받고 북한에 군복으로 가게 되었다.
북한에 도착한 박선생은 원전사령관 조라넨코
소장의 지로남에서 북한에서의 호지국유화 정책실
현에 대한 법령 해석 및 그의 실현을 위하여 개인
소유 및 지주호지들을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가족부담
에 따라 분배하여 그에 따라 협동조합 조직원등을
전체하는 사업등을 조직지도 하였다. 호지 개혁을 완수
하고 협동조합을 조직할 때위에서 1946년도 화공
계획이 완수되자 박선생은 행정사령관 조라넨코
소장과 김일성 우방의 공동 지시로 북한에 고급지도
간부들을 양성할 고급지도 간부학교를 조직하게 되었
다 이 간부학교의 명칭 교장은 김일성이나 전제 학교
운영 조처는 박선생이 직접담당하고 지도하였다.
고급지도 간부학교에는 소련으로 부터 북한에 나온 전
체 고급원예들을 모집하여 교원들로 임명하고 개
학은 1946년 6월 1일 부터 개교하였다. 박선
생은 모든 조직사업은 하였으나 다 직접 김일성의
명의로써 지시 겸임하였다. 제 1회 졸업식은 1946
년 9월 중순에 있었으나 그 졸업식에는 김일성우
방, 김주봉 상임위원장 최용권 인민복보위장이 참가
하였으며, 소련 제 25군단 사령관과 인민전사령
관도 참석하였다. 제 1회 졸업증서는 직접 김일성
이 대 졸업생들에게 증정하였다.

박영빈 선생이 내각중앙지도 간부학교에서 공직 9. 적 인정을 받으시고 교육을 지도하고 있던 1948년 8월에는 남한에서도 2백여명 대의원들이 북한 들어와 있다가 전부다 내각 간부학교를 졸업하고 정부 고졸직무들에 배치를 받게 되었다. 이때에 백남운, 허헌, 홍영희 등 여러 선생들도 다 같이 배치를 받았다.

역시 1948년 12월에 박영빈 선생은 소련과 미국의 주재로 서울에서 열리었던 소리 공동회의에서 쓰디쓰디 대강의 보좌관으로 같이 참가하시었다. 소리 공동회의에서는 조선 전역에서 소리군대는 철취할 준비를 세기 하였으나 미국의 부동으로 소련 후속대를 쓰디쓰디 대강은, 소련은 자기 군인들을 일방적으로 1948년 말까지 할 한도에서 철취할라고 선언하였다. 사실 그후 소련군대는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1948년 12월까지 철취하여 나갔다. 박영빈 선생은 계속하여 1949년 말까지 내각 간부학교에서 일하시다가 처음에는 교육성복상으로 전근되었다가 1950년 말부터는 조선로동당 조직부 부부장으로서 계시면서 당조직사업으로 지로하였다. 다음 1953년 4월에 허가이 부의원장이 앞날 당한 어둡 박영빈 선생은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장 겸 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이 되었다. 이때부터 박 선생의 직책은 아주 중대하였다. 박 선생은 당내 전체 조직사업으로 책임있게 하는 한편 전체 당간부, 정부요인들의 조동은 전적으로 책임있게 지로하였다.

1954년 부터 시작된 사상검론 운동은 북한에서 일하고 계신 간부들은 누구랄것 없이 그들의 정치적 믿음성에 대하여 검열하였다. 이 운동이 시작되자 소련에서 파견된 간부들도 많이 사상검론에 통과되지 못하

고 철직, 조종, 후유복은 유형지로 화성리였던 것이다. 이들 중에는 박영빈 선생의 제이로서 응급, 명진된 사람도 많았다. 때문에 박영빈 선생도 역시 소련 가족주의자를 비판 받게 되었다. 이상 조건에 의해서 박영빈 선생은 1957년 5월에 당중앙위원회 조직 부장에서 철직 되었으며 당중앙 정치위원회 위원명 단에서 제명되고 대외 무역성 부장직에 조종 되게 되었다. 본래 말사가 드문 박영빈 선생은 비판을 사상적으로 접수하시고 새로 임명된 대외 무역성 일을 열성적으로 조직 집행하면서 1960년 말까지 일하시었다. 본래 어려서부터 집에서 고린 공부를 하시면서 공부하시고 또 다년간 빈천한 레닌그라드에서의 유학생 생활은 많은 악영향을 주어 50세에 넘어선 박선생에게 많은 병적 근원들을 초래하였던바 특별히 위연 질병이 극심하여 때로는 침대에서 버리개를 안고 돌아가는 형편이었다. 때문에 박선생은 환경을 보아하니 어전에 소련에서 같이 북한에 나와 일하던 간부들은 권부다 귀환하는 조건하에서 소련에 귀국하여 가서 친척들의 방으로 받은 편지들로 함께 하여 소련 정부와 북한 정부에 청원서들로 제출하였었다. 소련 정부는 1960년 말에 박선생 청원을 심의하고 이어 허락을 해주었고 조선측에 박영빈 선생의 청원에 비준하여 달라는 편지를 보냈었다. 이에 따라 북한 정부도 박선생의 귀환을 허락하여 주어, 박선생은 1961년 3월에 문선로바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수속을 거쳐 4월 초순에 친척들이 살고 있는 라뉴켄호에 오게 되었다. 반가운 친척들과 여러 가까운 친척들을 만나신 박영빈 선생은 근 반년간 휴식하면서 소련 각 지역 휴양소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사진은 박선생의 화남 철북가 두아들로 데리고
만든 배경에서 같이 찍은 사진. 1995.4.20.

박영번 선생은 병치료로 받을것만 통식도 할것하여
자기 옛친구들이 가장 많이 살고있는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알마아따 등에 들어간뒤 그동안 - 15년동안 북한
에 가서 조국건설에 애쓰고 일하다가 환란한 성공을
못보고 돌아오게된 여러가지 조건들에 대하여 어어의
하에 애깊고 씩씩한 밝은 시로 난곡조하였다.

이렇게 장시간 추식한뒤에 박영번 선생은 우
르백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당간부복에
가서 가족들을 위한 사택문제, 아이들의 공부문제도
북인의 취직문제로 해결받은뒤에 박선생은 상업
성관하 화슈켄트시 식료품관리국 산하 식료품관리
기업노드레브노 관리책임자로서 배치되어 1965
년에 연금생으로 나가실때까지 꾸준히 일하시었다.
1965년 말에 연금생활에 나오신 박선생은 소련군
으로 조선해방전쟁에 참가한 전리로 부름을 받음



박영빈 선생은 복원에너 선물로 보내온 회전자전거
를 돌리면서 부인 라리야에게 설명하여 주는 장면.

노릇에 단념해서 12년 외를 받군 하엿으며 '업곳'에
있는 친척과 친구들집에로 단념하군 하엿다.

1990년 9월에는 모스크바 국제 북한 대사관 발동
 서기가 다뉴겐호에 살고있는 한인들이 만나볼려워서
 황성복의 사택에서 그와 담화하고 돌아간적이 없었다
 그후 북한정부를 무너공식적으로 초대장이 몇장 왔던바
 레하(현 황성복, 리훈익, 박영빈, 강철, 리세호 등 5명
 이 그 초대장을 받았다. 그후 이 5명은 북한에 초청받
 아 가게 되었다. 가고 오고 - 왕복 여비와, 북한 체류기
 간 비용은 전액다 북한 정부가 전담하였다. 북한에 도착한
 5명 인사들을 김일성 수상은 평양에서 만나지 않고
 청진에서 만나게 되었더라 동행자중 강철 선생의
 말쑤에 의하면 김일성 수상은 말하기를 - 참 나는 너
 이들이 소련에 돌아가는것은 모르고 있었다 - 라고
 하면서 - 자 그동안 뉘어나 알이나 변종이 리였는가
 보라고 하면서 허리 동맹을 맞두 끌어 안아보았다 -
 고하였다. 그후 김일성 수상의 명령에 따라 군사간
 부들은 군사청호 일주일 더 놀며 죽고 박영빈 선생에
 게는 보건용 자전기 설비를 선물하였다. 이상 5명은
 자기의 요구에 따라서 북한에서 약 일개월씩 휴식
 도 하였다 그후 이상 5명은 동북안하에서로 휴식소
 청을 받아 평양에 가서 휴식하고 최후로 받았다고
 러나 1997년 북이 시작하여 북한에 초청하는 번수가
 전혀 적어졌으며, 이상 5명 중에서 4분이 도라가
 시고 다만 황성복 한분만 현재에 계신다.

박영빈 선생의 북인 남(리야) 여사는 1996년
 에 도라가시고, 박영빈 선생을 항상 돌보아주고
 감싸주시던 북인이 먼저 도라가신후 아주 작정하
 게 고령하면서 지내었다.

때문에 멀리 찾아갈 필요도 없이 하루종일 서로 만나
 나시지 못하면 큰 사고나 생길것처럼 서로 전화로 결
 어 찾곤 하였다. 그렇게 한집 식구처럼 다정히 지
 내시던것이, 연생이란 아주 급정된 범금 범위에서 살
 고 있기 때문에, 연노한분은 이세상을 떠나기 마련이거
 어린 세대는 새로 차라기 마련이어서, 장철 선생은 1996
 년에 도라가시고, 박영빈 선생은 1998년 5월 17일
 에 세상을 떠나시었다. 박영빈 선생은 자기 생활
 의 막이막 순간까지 차남 철우와 같이 계시면서
 손자 2명을 별것으로 여류만치면서 즐거움만을
 보내시었다.

1998. 11. 4. 다뉴권촌에서 장철 명.